



12일(한국시간)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애리조나-LA 다저스전에선 빈볼이 오간 끝에 집단난투극이 벌어졌다. 6회말 야시엘 푸이그(왼쪽 사진 왼쪽)가 안면에 볼을 맞으면서 신경이 곤두선 다저스 선수단은 7회말 잭 그레인키(가운데 사진 오른쪽)에게까지 빈볼이 날아들자, 곧바로 그라운드로 뛰어나갔다. 다저스 마크 맥과이어 타격코치(오른쪽 사진 오른쪽)는 애리조나 커크 김슨 감독을 상대로도 거칠게 항의하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LA | AP-연합뉴스

애리조나의 '헤드샷' 싸움의 룰 깨트리다

감히 투수를? 흥분한 매팅리 감독 양키스 돈 짐머 '패대기' 사건 재현

애리조나-다저스 집단난투극의 재구성

벤치 클리어링은 대개 평화적으로 마무리 애리조나, 푸이그 이어 그레인키에 빈볼 루키·투수는 건들지 않는다 불문을 어겨 막싸움 변질... 류현진 오늘 등판 부담감

벤치 클리어링(bench-clearing). 말 그대로 선수들이 턱아웃을 박치고 벤치를 비우는 상황을 일컫는다. 경기 중 어떤 충돌상황이 빚어졌을 때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진다. 이때 불문 투수까지 총출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벤치를 박치고 나가지 않으면 벌금잡이다. 벤치 클리어링 상황인데도, 그것을 감행하지 못하는 팀은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치 클리어링은 '평화적'으로 끝난다. 벤치 클리어링 자체만으로도 상대팀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그라운드로 쏟아져나온 선수들은 '그만하자'며 서로를 진정시키거나, 심지어는 안부 등으로 잡담을 나누기도 한다.

12일(한국시간) 다저스스타디움에서 터진 애리조나와 LA 다저스의 대치상황은 현장에서 벤치 클리어링을 넘어 'brawl'이라는 단어로 묘사됐다. 풀어쓰면 '막싸움'이다. 다저스 공식 홈페이지는 'Headhunting Night'라는 표현까지 썼다. 어쩌다 야구장에서 아이스하키에서나 볼 수 있는 집단난투극이 벌어졌을까.

●다저스는 왜 그토록 흥분했을까?

싸움에도 예외가 있는 법이다. 그 금도들 애리조나가 2차레나 여기면서 싸움이 커졌다. 이날 경기에서 사구는 5개가 나왔다. 첫 번째는 5회초 다저스 선발 잭 그레인키가 애리조나 선두타자 코디 로스를 맞힌 것이었다. 곧이어 제이슨 쿠벨의 선제 2점홈런이 터졌다. 정황 상, 고의성을 두기 어려웠다.

그런데 6회말 애리조나 선발 이언 케네디가 1사 후 다저스의 루키 4번타자 야시엘 푸이그를 맞혔다. 문제는 시속 148km의 강속구가 얼굴로 향한 것이다. '살인투구'에 코를 맞은 푸이그는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루키에게 빈볼을 던지지 않는다'는 메이저리그의 암묵적 룰을 애리조나가 깨자, 다저스는 어떻게든 응징해야 했다.

그레인키는 7회초 선두타자 미겔 몬테로의 등을 맞혔다. 2-2 동점인데도 선두타자의 출루를 감수하면서까지 보복한 것이다. '상대팀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에게 보복한다'는 묵시적 룰을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 몬테로도 내심 각오했는지 그리 흥분하지 않았고, 1차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으나 비교적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7회말 첫 타자를 범타 처리한 케네디는 타석에 들어선 그레인키에게 '헤드샷'을 날렸다. 애리조나가 '투수에게는 빈볼을 삼간

다'는 불문을마져 여긴 순간, 다저스 벤치는 이내 심을 잃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앞장섰고, 양 팀 선수들이 쏟아져나와 '격투'가 벌어졌다. 원인제공자인 케네디와 커크 김슨 애리조나 감독은 물론, 김슨 감독과 매트 윌리엄스 애리조나 타격코치의 목살을 잡은 마크 맥과이어 다저스 타격코치와 '1차 피해자'여서 가장 흥분한 푸이그도 퇴장했다. 다저스 선수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터너 워드 애리조나 타격보조코치도 퇴장했다.

다저스는 8회초 1실점했으나 8회말 팀 페데로위치가 만루서 3타점 2루타를 터뜨린 데 힘입어 5-3으로 역전승했다. 역전 직후 다저스 마크 엘리스가 또 사구를 맞았으나 참았기에 3차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도무지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다저스는 난투극 직후 역전승을 거둬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13일 선발 출격하는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김영준 기자 galby@donga.com 트위터 @matrsr21

LA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12일(한국시간) 애리조나 전 7회말 1사 후 상대 선발투수 이언 케네디가 잭 그레인키의 얼굴쪽으로 시속 148km의 공을 던지자, 가장 먼저 벤치를 박치고 뛰어나갔다. '쿠바산 괴물' 야시엘 푸이그에 이어 제2선발 그레인키가 잇달아 얼굴쪽으로 날아든 빈볼에 맞자 매팅리 감독의 분노도 폭발한 것이다.

매팅리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선수들 못지않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앨런 트라펠 애리조나 벤치코치와는 실랑이를 벌이다 턱을 가격한 뒤 바닥에 메다꽂기도 했다. 마크 맥과이어 다저스 타격코치도 커크 김슨 애리조나 감독의 목살을 잡으며 격한 감정을 표출했고, 이를 말리던 매트 윌리엄스 애리조나 타격코치와도 대립하며 혐악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터너 워드 애리조나 타격보조코치는 몇몇 다저스 선수들에게 집단으로 얻어맞기도 했다.

이날 사건은 메이저리그의 대표적 야수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이 맞붙은 2003년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 때 벌어진 난투극을 방불케 했다. 당시 보스턴 선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4회초 양키스 카림 가르시아를 향해 머리쪽으로 빈볼을 던지자, 양 팀은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 분위기를 수습하고 10분 뒤 경기는 재개됐지만, 공수교대 후 양키스 선발 로저 클레멘스의 공이 몸쪽으로 날아오자 양 팀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우르르 쏟아져나왔다. 특히 마르티네스는 자신을 향해 소리치며 뛰어나오는 당시 72세의 돈 짐머 양키스 벤치코치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벤치 클리어링 때 대개 선수들을 말리고 분위기를 수습하는 코칭스태프까지 가담한 '희대의 난투극'이 이날 애리조나-다저스전을 통해 10년 만에 재현된 것이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추신수, 컵스전 1안타 1득점...팀도 12-2 대승

신시내티 추신수가 12일(한국시간) 리글리필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2루타) 1득점을 기록했다. 희생번트도 1개 추가한 추신수의 타율은 0.280, 출루율은 0.430으로 조금씩 떨어졌다. 신시내티가 12-2로 이겼다.

이대호, 요미우리전 3타수 무안타...팀도 패배

오릭스 이대호가 12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요미우리와의 인터리그 홈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쳤다. 시즌 타율도 0.325로 떨어졌다. 오릭스는 1-7로 패했다.

넥센 김병현 판정 불만? 조기 강판에 퇴장까지

넥센 김병현이 12일 사지 롯데전에서 시즌 4호 퇴장을 당했다. 4회말 2사 3루서 연속 볼넷으로 만루 위기를 맞은 김병현이 이보근과 교체되는 과정에서 공을 1루 턱아웃 옆으로 집어던졌다는 이유다. 심판진은 "판정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동작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화 한용덕 코치 모친상...미국서 연수 중 비보

한화 한용덕 코치가 12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대전 목동 선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4일 오전 7시30분. 현재 LA 다저스 마이너리그에서 연수 중인 한 코치는 13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042-253-4445.

■빅마우스

- 1위 감독이 왜 살이 빠져. (롯데 김시진 감독, 최근 체중이 많이 줄어든 넥센 염경엽 감독이 경기 전 인사를 오자)
- 여름 관리랑 미백 관리를 매주 받거든요. 살아있죠? (롯데 손아섭, 갈수록 동안이 돼 간다는 취재진의 말에)

■엔트리노트 <12일>

- 등록=오재일(두산) ●탈소=이정호(두산)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나지완 결승포 왕!...KIA, 4연승 질주

두산, 6연패 탈출...SK 레이에스 완투패 롯데 박준서 싹쓸이 결승타...넥센, 2위로



두산이 지긋지긋한 6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KIA는 4연승으로 추기쳤고, 넥센은 시즌 첫 3연패 속에 2위로 내려앉았다.

두산은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SK전에서 에이스 니퍼트의 역투와 베테랑 타자들의 천금같은 적시타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0-0으로 맞선 5회말 2사 3루서 손시현-이종욱의 연속 2루타로 2점을 선취해 분위기를 잡았다. 두산 선발 니퍼트는 7이닝 5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에이스의 몫을 다하며 시즌 6승째(3패)를 수확했다. 7~8일 대구 삼성전에서 사상 최초로 2연속경기 끝내기홈런을 맞았던 두산 마무리 홍상삼은 9회 등판해 1이닝 1탈삼진 무

실점으로 2세이브째를 올리며 총격을 치유했다. SK 선발 레이에스는 8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완투패를 당했다.

KIA는 광주에서 NC를 2-1로 꺾었다. 4월 2~7일 5연승을 달린 뒤 시즌 2번째 4연승, 7회 나지완의 솔로홈런(시즌 8호), 8회 김주찬의 적시타로 승기를 잡았다. KIA 선발 소사는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10개를 뽑아내며 8이닝 6안타 1실점으로 시즌 7승째(3패)를 올려 다승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KIA 마무리 앤서니는 1이닝 무실점으로 18세이브를 신고했다.

롯데는 사직에서 넥센을 6-3으로 눌렀다. 롯데는 1회 박준용의 선제 3점홈런(시즌 2호)으로 앞서나간 뒤 3-3으로 팽팽히 맞선 8회말 대타 박준서의 3타점 2루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넥센은 이날 쉰 삼성에 선두를 내주며 5월 25일 이후 18일 만에 2위로 떨어졌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타자의 스윙까지 들린다...베일 벗은 광주 신축야구장

실제 경기가 열리면 바로 눈앞에서 포수가 공을 받고 타자가 스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흙에서 겨우 19m 떨어진 관중석. 투수의 공이 포수의 미트에 평평 꽂히고, 타자가 공을 때리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질 법했다.



12일 방문한 광주 신축야구장(사진)은 포항구장을 제외하면 국내서 볼 수 없었던, 흙 바로 뒤에 설치된 관중석이 인상적이었다. 흙에서 관중석까지의 거리는 마운드에서 홈까지의 거리 18.44m보다 고작 56cm 긴 19m였다. 1루와 3루 관중석도 그라운드와 최대한 밀착돼 선수들의 다이내믹한 플레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외관과 내부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끝난 현장은 모든 시아가 그라운드로 집중되는 구조라 편이 인상적이었다. 턱아웃과 선수단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도 국내 최대 규모였다.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57%다. 골 조명과 내부시설 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12월 완공 목표로 총 2만 2328석에 타이거즈 박물관도 들어선다.

최근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본 KIA 선동열 감독은 "가림막을 걷어내니까 외관이 웅장하다. 관중도 야구를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고, 선수들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k



롯데 박준서(위)가 12일 사지 넥센전 8회말 2사 만루서 3-3의 균형을 깨는 싹쓸이 2루타를 친 뒤 김응국 코치의 환호하고 있다. 사진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